

박수받은 KIA

가을야구 미완의 마침표

5년 만에 찾아온 KIA의 가을전지가 진한 여운을 남기고 끝났다. 박수받으면서 퇴장한 패자들이었다.

KIA는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 0-1 패를 기록했다. 준플레이오프를 위해 2승이 필요했던 KIA는 시리즈 전적 1승1패를 기록, 아쉽게 가을 도전을 멈춰야 했다.

◇동행

1안타로 끝난 경기였지만 많은 팬은 패자가 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동행'으로 이뤄낸 5년 만의 가을전지를 '동행'으로 마무리한 KIA였다.

올 시즌 KIA는 많은 이들로부터 최하위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런 평가를 뒤로하고 김기태 감독은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선수단을 끌어갔다.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 한 단계 성장한 선수들도 '할 수 있다'며 5년 만의 가을전지를 이뤘다.

그리고 KIA는 5위 팀의 불리한 위치에서 치른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LG를 4-2로 제압하고 팬들에게 하루 더 가을 야구를 선물했다. KIA 양현종과 LG 류제국의 기싸움 속에서 진행된 승부차기 2차전에서도 선수들은 '동행'을 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환상적인 수비로 김주찬, 노수광이 양팀 관중석의 표정을 엿갈리게 했다. 덕아웃에 있는 선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공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응원했다.

그리고 흐름이 기운 9회말 1사 만루, 외야 플레이 하나면 경기 끝나는 상황에서 LG 김용의가 친 공이 중견수 방향으로 향했다. 맞는 순간 LG 덕아웃과 응원석에서 승리의 환호성이 터질 정도로 큰 플레이 타구였다. 전진수까지 이뤄진 상황. 많은 팬이 상상한 장면은 공을 쫓는 걸 포기한 수비수들의 축 처진 어깨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견수 김호령이 사력을 다해 몸을 돌려 공을 잡았다. 그리고 공을 잡은 김호령은 혼신을 다해 2016 와일드 카드 결정전 마지막 송구를 했다. 물론 예상대로, 당연히 3루에 있던 황목지승은 여유롭게 홈을 밟고 끝내기 기쁨에 취한 LG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나왔다.

포기할 수 없었던 김호령의 질주와 송구는 응원팀을 떠나 많은 야구팬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 좌익수 김주찬도 전력으

로 후배와 함께 뛰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마무리된 경기.

팬들도 빼어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었다. 경기 전 "늘 잠실에 많은 팬이 찾아주시니까 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던 선수들이었지만 팬들의 각별했던 응원에는 "소름끼칠 정도였다"며 든든해 했다.

관중석에서라도 질 수 없었던 팬들의 혼신을 다한 응원에 KIA 선수들은 5년 만에 팬들과 '동행'을 하며 아름다웠던 2016 시즌에 작별을 고했다.

"동행 정신으로 한 시즌을 보냈다. 아쉬움도 있지만 선수들이 정말 잘했다"고 언급한 김기태 감독은 "(한승택의 활약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특정 한 선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선수들이 저서 실망도 많이 했을 것이다. 내년에는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2016시즌 마지막 경기 소감을 밝혔다.

◇하나
2016시즌을 '동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번 포스트 시즌의 화두는 '하나'였다. 4-0으로 앞선 1차전 8회말 필의 대수비로 들어가면서 처음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고영우는 "들어가지마자 팀에 위기가 와서 긴장을 많이 했다. 공 하나하나가 정말 절실했고 집중했다. 아웃카운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아쉬운 패배에 1승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볼게 됐다. KIA는 시즌 마지막까지 LG와 4위 싸움을 하면서 에타는 시간을 보냈다. 시즌 초반에 쉽게 흘러보냈던 1승을 모아서 "내년 시즌에는 우리 팀이 정말 더 강해질 것 같다"며 희망을 이야기한다. 11월 선수들의 가슴에 담긴 쓴 패배는 타이거즈 왕조 재건의 좋은 밑거름 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일 잠실야구장에서 '2016 타이거뱅크 KBO리그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8회말 2사 1,3루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간 KIA 김기태 감독이 내야수들을 불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올 시즌은 행운... 미래의 디딤돌 됐다”

'감동의 질주' 김호령

"2016시즌은 행운이었다"고 돌아본 KIA는 김호령은 "아침에는 실감이 안났는데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김호령에게 12일은 야구가 끝난, 일 년 중 가장 슬픈 날이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보내고 맞는 슬픈날이라 김호령은 "아쉽다. 너무 아쉽다"를 연발했다.

김호령은 2016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마지막 공을 잊을 수 없다. 많은 야구팬은 그 공을 향해 뛰어가던 김호령을 잊을 수 없다. 9회말 1사 만루에서 중견수 김호령을 넘어 날아가던 공은 KIA의 패배를 의미했다. 그러나 전진수를 하고 있던 김호령은 뒤를 돌아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을 향해 달려갔다. 선배 김주찬도 함께

전력으로 달려주었다. 그리고 어렵게 공을 넘어 김호령은 온몸을 던져 공을 던졌다. 혹시 모를 기적을 바라면서.

김호령은 "맞는 순간 알았다. 나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신 분들도 경기 끝났다는 것을 다 아셨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간절했다. 야구라는 게 혹시 모르는 것이다. 또 끝내기 상황에서 상대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어필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며 마지막 공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바람과 달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쳐서 가는 꿈을 꾸던 김호령은 광주에서 12일을 맞았다.

김호령은 "선수들 모두가 끝까지 하려고 했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1차전 애국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규시즌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

별거 아니네라며 수비를 나갔는데 떨리고 긴장이 됐다. 응원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팬들이 응원하는 게 소름 끼칠 정도였고 이게 포스트 시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간절했던 승리, 긴장감 넘치는 경기. 야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일이었다.

김호령은 "긴장도 됐는데 재미있었다. 확실히 포스트 시즌의 느낌이 달랐다. 긴장 반, 재미있는 것 반이었다"며 "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오른손 투수에 약하니 2차전 선발에서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서운한 것은 없었다. 대신 덕아웃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했다. 팀을 생각하고 팀이 하나가 된 순간이

었다. 이런 경험도 해보고 내년에 우리 팀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포스트 시즌 무대에도 서 본 2016시즌을 '행운'이라고 말하는 김호령. 내년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김호령은 "올 시즌 돌아보면 아쉽다. 초반에는 타격이 좋았는데 후반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타이밍도 안 맞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들었다. 볼을 많이 골라야 하는데 삼진을 많이 당했다. 주루 플레이를 하면서도 마음만 급했다"며 "올 시즌은 그래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 느낌이다.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매년 더 좋아지는 느낌이다. 내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눈총받은 축구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에 0-1 패하며 조 3위

9년 연속 본선행 장담 못해

감독은 선수·시스템 탓만

이란 원정에서 완패를 당한 우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선수들의 '불손한' 행동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슈틸리케 감독은 정작 경기 패배가 남 탓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42년간 지속한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최근 이란전만 4연패. 경기 결과는 0-1이었지만, 내용상 완패였다. 이전 3경기기는 그나마 우세한 내용을 보이다 아쉽게 패했지만 이날은 슈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이란과 실력은 "중이 한 장 차이"라며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왔다"고 큰소리쳤지만, 이날 보여준 기량은 훨씬 컸다. 선발 라인업부터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더니 한 번도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해 감독의 '전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간 순위

A조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 이란	3	1	0	4	10
2 우즈베키스탄	3	0	1	3	9
3 대한민국	2	1	1	1	7
4 시리아	1	1	2	-1	4
5 카타르	1	0	3	-3	3
6 중국	0	1	3	-4	1

자료/FFA 연합뉴스

러나 슈틸리케 감독은 패배의 책임을 선수에게 돌렸다. 그는 경기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카타르 세바스티안 소리아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화살을 공격수들에게 돌렸다.

앞서 카타르전에서는 "홍정호가 전반에는 페널티킥을 주는 과정에서 실수했고, 후반엔 자신의 패스 실수 이후 파울까지 하면서 퇴장을 당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달 중국과 경기에서 3-0으로 앞서가다 두 골을 허용했을 때에도 "일부 선수들은 경기 감각 상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며 선수 탓을 했다.

이란전에서 패한 뒤에는 한국 축구의 시



12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이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에서 한국 주장 기성용이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팀까지 문제 삼았다. 한국이 42년 동안 이란 원정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강팀을 극복하려면 장기적인 플랜과 대책이 나와야 하며 "유소년 단계부터 많은 노

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달에는 손흥민 등 팀 내 주축 선수들을 싸잡아 비판해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중국과 최종예선 1차전에서 후반 44분 교체되자 물병을 걸어

차 논란이 된 손흥민(토트넘)에 대해 '불손한 행동'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에 대해서도 소속팀 감독과 문제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남은 최종예선은 6경기. 한국은 이란전 패배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조 3위로 떨어졌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9회 연속 본선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